

# 승패 3대 열쇠 서브·블로킹·리시브...버티는 팀이 웃는다

오늘 여자배구 플레이오프 3차전  
1·2차전 서브·블로킹이 승패 갈라  
챔피언결정전 출전 티켓 놓고  
흥국생명-기업은행 마지막 대결

버티는 팀이 챔피언결정전 출전 티켓의 주인이 된다.  
챔피언결정전에 선착한 GS칼텍스가 바란 대로 여자프로배구 플레이오프(PO·3전 2승제)는 마지막 3차전까지 이르렀다.  
집을 쌀 위기에 몰렸던 IBK기업은행이 지난 22일 흥국생명을 세트 스코어 3-1로 제압해 양 팀은 24일 오후 7시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건군일치의 시즌 9번째 대결을 벌인다.  
정규리그 전적 4승 2패를 포함해 8번의 다름에서 흥국생명이 기업은행을 5승 3패로 앞섰지만, PO 3차전에서 지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미 전력은 바닥까지 노출된 만큼 선수들의 정신력과 집중력이 승패를 가른다. 누가 더 절실하게

한 발 더 뛰느냐에 희비가 교차한다.  
PO 1~2차전에서 서브와 블로킹 득점을 더 많이 한 팀이 웃는다.  
효과적인 서브로 리시브를 흔들며 상대 팀 주포에게 좋은 공이 올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양 팀은 번갈아 웃었다. 서브와 블로킹은 그래서 한 묶음이다.  
흥국생명은 1차전에서 블로킹 13-4의 압도적인 격차, 서브 에이스 6-4의 우위로 승리를 맛봤다.  
이 경기에서 기업은행의 리시브 효율은 17.98%로 흥국생명에 크게 뒤졌다.  
왼쪽 무릎이 아픈 표승주는 자신을 겨냥한 서브 폭탄을 거의 없애려 받았다. 표승주는 "번히 서브가 오는데도 몸이 따라와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2차전에서선 양상이 180도 바뀌었다.  
1세트에서 12연속 득점을 올리는 등 흥국생명의 득점을 단 6점에 묶어 역대 포스트시즌 한 세트 최소 득점의 골육을 안긴 기업은행은 블로킹 10-6, 서브 9-2로 흥국생명을 제압했다.  
리시브 효율에선 1차전과 비교해 큰 차이는 없었으나 새로운 세트 김하경을 앞세워 공격 성공률을

44%대로 끌어올렸고, 김희진이 김연경의 공격을 잘 방어하면서 블로킹으로만 6점이나 올린 게 컸다.  
표승주는 경기 후 흥국생명 도수빈과 김미연 사이를 겨냥한 목격타 서브가 잘 통했다고 쏘였다.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절박함'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자 3차전을 좌우할 열쇠다.  
표승주는 "(고생하면서) 어떻게 올라온 PO라는 상황에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려고 집중했다"고 1차전 부진을 딛고 2차전에서 반등한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3차전에선 1차전과 같은 경기를 안 하도록 리시브를 더욱 신경 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시즌 후 해외 재진출 등 여러 선택지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 김연경(흥국생명) 역시 흥국생명에서의 봄 배구가 마지막일 수 있다는 심정을 예들러 표현했다.  
그는 포스트시즌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이번 시즌이 끝난 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이 기회를 잡아 우승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지난 22일 열린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 플레이오프 2차전 IBK기업은행 알토스와 흥국생명 핑크스파이더스의 경기. IBK기업은행 라자레바가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 채운토건 여자검도 춘계대회 3위

광주 대표 (주)채운토건 여자 검도팀이 전국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  
채운토건 검도팀은 23일 충남 청양 군민체육관에서 열린 제25회 춘계전국실업검도대회 여자부 준결승전에서 과산군청에 0-1로 졌다.  
채운토건은 본게임에서 팽팽한 접전을 치른 끝에 0-0 무승부를 기록했다. 하지만, 양팀의 대표선수 1명이 출전해 최종 승부를 가리는 대표전에서 패배했다.  
채운토건은 8강전에서 사 이닝을 2-0으로 꺾고 준결승전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한 채운토건 선수는 연지은·정



지윤·김도운·박다영 등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임성재 특급대회 'WGC 매치플레이' 데뷔

세계랭킹 상위 64명 출전  
김시우도 우승 도전

임성재(23)가 세계 정상급 선수에게만 기회가 주어지는 월드골프챔피언십(WGC) 텔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1050만 달러)에 처음으로 출전한다.  
이번 대회는 24일(현지시간)부터 5일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다.  
텔 테크놀로지 매치플레이는 1년에 네 차례만 열리는 '특급 이벤트' WGC의 하나로, 그중에서도 세계랭킹 상위 64명만 출전할 수 있는 대회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대회가 취소돼 2년 만에 개최된다.  
임성재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루키이던 2년 전인 이 대회에 나설 수 없는 선수들을 위해 마련되는 코랄레스 폰타카나 리조트 앤드 클럽 챔피언십에 출전했다. 이후 2년 사이 PGA 투어 신인상을 받고 첫 승도 거둬 위상이 한껏 올라가 매치플레이에도 첫선을 보이게 됐다.  
임성재는 지난주 PGA 투어 첫 타이틀 방어전

이었던 혼다 클래식에서 공동 8위에 올라 이번 시즌 3번째 톱10에 진입한 뒤 이번 대회에 나선다.  
그는 PGA 투어가 대회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망한 '파워 랭킹'에서 8위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패트릭 리드(미국), 폴 케이시(잉글랜드), 쟈더 쇼플리, 빌리 호셀, 저스틴 토머스, 브라이언 디샬보(이상 미국), 온 램(스페인)이 1~7위로 뽑혔다.  
이번 대회는 4명씩 나뉘어 16개 조의 조별리그를 벌여 각 조 상위 1위가 16강에 진출, 16강부터는 단판 대결을 벌이는 방식이다.  
임성재는 조별리그에서 빅토르 페레스(프랑스), 마크 리슈먼(호주), 러셀 헨리(미국)와 같은 조에 편성됐다. 임성재는 세계랭킹 17위로 이 조의 4명 중 가장 높다.  
임성재 외에 한국 선수로는 세계랭킹 48위인 김시우(26)가 나선다.  
2018년 대회 때 16강에 진출해 토머에게 져 탈락했던 김시우는 올해 조별리그에선 장타로 골프계에 화제를 일으키며 이번 시즌 페덱스컵 랭킹 1위에 올라 있는 세계랭킹 5위 디샬보와 격돌한다.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 양우탄 로즈너(프랑스)가 이들과 한 조에 들었다. /연합뉴스



연습도 실전처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 세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23일 일본의 미야하라 사토토가 연습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연패 탈출

NBA 휴스턴, 한달 보름만에 승리

미국프로농구(NBA) 휴스턴 로키츠가 토론토 랩터스를 잡고 구단 최다 20연패 수렁에서 탈출했다.  
휴스턴은 23일(한국시간) 미국 휴스턴의 토요타 센터에서 열린 2020-2021시즌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토론토에 117-99로 이겼다.  
지난달 8일 열린 샌안토니오 스퍼스와 경기부터 한 번도 못 이겨 창단 최다 20연패에 빠졌던 휴스턴은 한 달 하고도 보름여 만에 승리를 거둬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끝냈다.  
휴스턴은 3쿼터까지는 앞치락뒤치락하며 겨우 2점 차로 앞섰으나, 4쿼터에 매서운 골 밀 집중력을 보이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휴스턴은 리바운드(47-44), 어시스트(28-19), 스틸(7-6), 블록(7-5) 등 모든 지표에서 토론토에 앞섰다.  
존 월이 19점 11리바운드 10어시스트로 트리플 더블을 올리며 연패 탈출의 선봉에 섰다.  
월을 비롯해 브라운(20점), 제이슨 테이트(22점), 크리스천 우드(19점) 등 선발 5명 중 4명이 20점 안팎의 득점을 고르게 올리며 휴스턴의 승리를 합작했다.  
특히, 토론토가 마지막 추격에 들어간 4쿼터 중반에는 달아나는 득점을 잇달아 올린 우드의 활약이 빛났다.  
우드는 종료 4분여 전 월의 어시스트를 받아 골대로 쇄도하며 앨리움 덩크를 넣어 107-92, 15점 차로 휴스턴이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토론토가 프레드 밴블리트의 점프슛으로 따라 붙었으나, 우드가 곧바로 시원한 투 핸드 덩크를 쏴다 다시 15점 차로 만들면서 토론토의 추격 의지는 한풀 꺾였다.  
휴스턴은 12승 30패로 서부 콘퍼런스 14위에, 토론토는 17승 26패로 동부 11위에 자리했다.  
밀워키 벅스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의 부상 공백에도 힘에서 인디애나 페이스서에 140-113으로 크게 이겨 7연승을 내달렸다.  
아데토쿤보가 무릎 통증으로 결장한 가운데 밀워키는 3점 24개를 폭발하며 낙승을 거뒀다. 밀워키의 외곽 성공률은 61.5%였다.  
즈루 할라데이가 자신의 시즌 최다 28득점에 14리바운드를 결들이며 밀워키를 승리로 인도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나리
2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모리타니안, 웨이 다운
3관	리아와 마지막 드래곤, 모리타니안, 더 박스
4관	미션 파서블
5관	미나리
6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9관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리스타트
7관	씨네커플 트윈디 해커, 정말 먼 곳, 최면, 더 박스
8관	씨네커플 그녀가 사라졌다, 라라의 신비한 모험 악역의 미운틴 타임, 톱과 제리

**광주문화예술회관 소식**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2. 24.(수) ~ 03. 31.(수)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GAC기획공연 포커스**

**아카펠라 그룹 EXIT (One Voice)**

일시 : 2021. 04. 11.(일) 15: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3

즐거움

**문화 산책**